

EU 화학산업 동유럽 편입효과 기대

소비재용 화학제품 수요강세 전환 ... 화학산업 고용은 골칫거리 등장

동유럽의 10개 국가가 EU(European Union)에 가입함으로써 화학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ricewaterhouseCoopers에 따르면, 신규 회원국의 가세로 EU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화장품, 가정용 세제 및 페인트 등 소비재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수요가 이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규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화학기업들은 중심부(Central Location)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지역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EU 환경규제에 따라야 하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다.

신규 EU 회원국은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로 모두 2004년 5월1일 EU에 가입했다.

따라서 신규 회원국의 화학기업들은 소규모 생산능력의 낙후된 플랜트로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해 졌다. 대기업들은 사업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몇몇 대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소기업들은 더 힘든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더 이상 저임금에만 의존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Eurostat에 따르면, 1998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는 고무 및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제품 생산(석유화학 제외)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9-12%를 차지했으며, 슬로바니아는 12%를 나타냈다.

반면, 전 15개 EU 회원국은 전체 제조업 생산에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했다.

화학산업 고용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앙 및 동유럽 화학산업(고무 및 플라스틱 포함, 석유화학 제외)의 고용시장은 약 455만명 규모에 달했으나 1989년 구조조정 및 생산성 하락으로 슬로베니아 및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신규 회원국의 고용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폴란드 화학산업의 고용인구는 약 11만2000명, 체코 및 헝가리는 각각 약 4만명, 슬로바키아(2만1000명) 및 슬로바니아는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 15개 EU 회원국의 화학산업 고용인구는 약 300만명 이상에 달해 전체 제조업의 12%를 차지했다.

한편, 신생 회원국은 화학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대내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60억유로로 전체 제조업 외국인 직접투자의 8.5%에 해당하는 39억 유로는 화학 및 화학제품 분야, 4.25%에 해당하는 20억유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분야에 투자됐다.

또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약 40%인 22억유로는 폴란드에서, 25%인 14억유로는 체코에서 발생했다.

<화학저널 2004/09/20>